

A책형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②	①	④	①	③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②	③	②	②	④	④	②	①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평창’은 ‘Pyeongchang’가 적절하다. 고유 명사이므로 첫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문제로 출제했으므로 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사 표기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오답]

- ① → 목호(Mukho) (O) :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기하는 전음법(轉音法)을 따르지만,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어야 한다. 예) 집현전(Jiphyeonjeon), 식혜(sikhye)
- ② → 극락전(Geungnakjeon) (O)
- ③ → 경포대(Gyeongpodae) (O)

2. 정답 ③

호도(糊塗)하다 :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호기부지 덮어 버리다. 풀을 바른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풀칠할 호, 칠할 도) 예) 현실을 호도하다.

[오답]

- ① → 지향(志向)(O) :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다.
- ② → 도매금(都賣金)(O) : 도매가격(도매로 파는 가격). (주로 ‘도매금으로’ 꼴로 쓰여)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같은 무리로 취급받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고]

지양(止揚) :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피함’, ‘하지 않음’으로 순화.
 예) 지역 갈등을 지양하다.
 향년(享年) :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죽을 때의 나이를 말할 때 쓴다. 예) 향년 83세를 일기(一期)로 별세하다.

3. 정답 ③

‘꼬냑’이 아니라 ‘코냑’이 적절하다.
 외래어 표기법 원칙 중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가 있다.
 예를 들어, ‘가스, 가운, 쿡트, 서비스’ 등이 맞다. 단, 일부 관용을 존중해 ‘빵, 샤쓰(=셔츠), 삐라, 빨치산’ 등은 허용한다.

4. 정답 ②

기본형 ‘들르다’의 활용은 ‘들르셨다, 들르는, 들러, 들렀다’ 등이 적절하다.
 참고로, ‘들리다’(‘들다’의 피동, ‘들다’의 사동)는 ‘들려, 들려서, 들렸다’라고 활용된다.

[오답]

- ① → 무릅쓰고(O)
- ③ → 띠(O)(기본형 : 띠다)
- ④ → 벌였다가(기본형 : 벌이다)
 참고로, ‘공간을 넓히다’는 ‘벌리다’이다.

5. 정답 ①

‘우리나라의 문학사상 시가문학이 중심을 이룬다’는 비문학 글이다. 접속사의 사용은 앞뒤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괄호는 뒤에 ‘때문이다’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제시 접속사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 괄호는 앞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므로 대등 첨가인 ‘그리고’가 와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괄호는 마지막 내용을 정리하는 문장 앞에 쓰였으므로 결론(결과)를 뜻하는 ‘그러므로’가 와야 한다.

6. 정답 ④

④번은 ‘잠귀’가 아니라 ‘잠가’가 맞다.
 용언의 활용은 기본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잠그다’라는 기본형에서 비롯하여 ‘잠가, 잠가서, 잠가라, 잠갔다’로 활용된다. 다만, 일상적으로 ‘잠귀, 잠귀서, 잠귀라, 잠꿨다’라고 쓰이는데 ‘잠구다’라는 기본형이 없으므로 모두 적절하지 않다.

[오답]

- ① 담가서(O) : 기본형이 ‘담그다’이다.
- ② 상큼해졌구나(O) : 까칠하고 눈이 썩 들어간다.
 예) 아파서 그런지 눈이 상큼해 보였다.
 참고로, ‘냄새나 맛 등이 향기롭고 시원하다’라는 뜻의 ‘상큼하다’와는 동음이의어이다.
- ③ 상기다 : 관계가 깊지 않고 조금 서먹하다.
 (=성기다=성글다)

7. 정답 ①

‘저촉(抵觸)’은 ‘법률이나 규칙 등에 위반되거나 거슬리다’라는 뜻으로 ‘어긋남’으로 순화할 수 있다.
 참고로, ‘해당(該當)’은 ‘들어맞음’으로 순화해야 한다.

예) 해당 사항이 없다.

[오답]

- ② 예) 가일층(加一層)의 노력
- ③ 예) 자동차를 대절(貸切)하다.

④ 예) 매점(賈占) 행위를 단속하다.

참고로, ‘물건을 파는 가게’를 뜻하는 단어는 ‘매점(賣店)’으로 동음이의어이다.

8. 정답 ③

인간의 유전자는 이기적이라고 했지만 ‘철저하게 냉혹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끝에서 부정했다.

비문학 일치 문제와 관련된 세 가지 유의 사항이 모두 반영된 문제이다. ‘때문에’라는 인과 관계의 함정, ‘그러나’ 이후의 핵심 정보, ‘부정 서술어’의 중요성 등 일치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할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였다.

9. 정답 ①

한글 맞춤법 57항의 단어들이다.

체로 술을 ‘받친다’가 적절하다. ‘받치다’는 ‘받다’를 강조하는 말로, ‘거르기 위해 따로 받아내다’라는 뜻이다. 특히 ‘술’과 관련해서 예로 나오기 때문에 ‘술을 받친다’라고 묶어서 외워 두어야 한다.

참고로, ‘받치다’는 ‘책받침, 옷을 받쳐 입다, 감정이 받치다’ 등으로 쓰인다.

[오답]

③ 같음하다 : 바꾸어 대신하다.

가름 : 가르다

④ 늘이다 : 늘게 하다(길이).

늘리다 : 늘게 하다(수, 양, 기간)

10. 정답 ④

글의 전개 순서 문제는 무엇보다도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A-A’-B-B’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런 다음 비슷한 중심 소재와 어휘를 연결시키면 된다.

이 문제 역시 (다)가 일반적 진술로 도입 내용이다. 다음은 (가)로, (다)에 대한 구체화이다. ‘선별, 유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전개 내용이며, 그 다음 (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전개 내용이며, 마지막 (나) 단락은 전체를 마무리 짓는 결론 단락이다.

따라서 정답은 ‘(다) - (가) - (라) - (나)’이다.

11. 정답 ②

참고로, 이 지문은 [2009 지방직 9]에서 단락 나누기 문제로 활용되었었다. 기출문제 지문을 어법 문제로 그대로 활용했다. 나중에 공부할 때도 기출문제 지문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어법 문제는 주술 관계의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한다.

②번 ‘~서유럽 사람들은 ~혐오감을 나타낸다’라는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가 일치하는 완전한 문장이다.

[오답]

① : ‘농경(農耕)을 지어 왔다’는 중복된 표현이다. ‘농경’이

‘농사를 짓다’라는 뜻이다. ‘농사(農事)를 지어 왔다’로 고쳐야 한다.

③ → ‘~서유럽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 (O)

④ → ‘~서유럽에서 ~식생활에 대해 거부감을~’ (O)

12. 정답 ①

<보기>의 글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측면’에 대한 도입 부분으로, 화제를 제시하며 앞으로 글의 방향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글의 서론 부분에 와야 한다.

[오답]

④ : 글의 내용 중 예시가 일부 들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시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 성격의 글은 아니다.

13. 정답 ②

해방 이후 달라진 소작인과 하인배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 해방 전에는 뒤에서는 싫어하더라도 앞에서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나와 있으므로 ‘면중복배(面從腹背)’가 적절하다.

면중복배(面從腹背) : 겉으로는 순종하는 속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음. (=구밀복검(口蜜腹劍))

[참고] 지문 속의 단어 ‘조리돌림’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하여 끌고 돌아다니면서 망신을 시키다’라는 뜻이다.

[오답]

① 곡학아세(曲學阿世) :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③ 부화뇌동(附和雷同) :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④ 허장성세(虛張聲勢) :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14. 정답 ③

질은(X) → 땀에 ‘진’ (O).

‘절다’는 ‘ㄹ’ 탈락 용언으로,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관형사형이나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ㄴ’이 붙을 때, ‘ㄹ’이 탈락한다.

예) 낮절다(→낮선), 날다(→나는), 돌다(→도는)

나머지는 어간에 특정 어미가 왔을 때의 활용이므로 적절하다. 참고로, 어간 끝 받침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오, -ㄹ’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예) ‘살다, 빌다’의 활용 : 사네, 빚시다, 사세, 비오, 살수록 등.

15. 정답 ②

비문학 글의 중심 내용은 주로 단락의 첫 문장, 끝 문장에 있다. 일반적 진술로 된 단정적 문장을 찾으면 된다.

이 글의 주제도 첫 문장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한다.’이다. 여기서 ‘유발(誘發)’은 ‘일어나게 하다’라는 단어로 원인, 결과와 관련된 단어이다. 따라서 정답 ①번도 ‘일으키다’라는 원인형 단어 ‘야기(惹起)’를 통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16. 정답 ②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고유한 우리말을 사라지게 했다는 내용이.

②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뻘다 :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한다.

[오답]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④ 말은 해야 맞고 고기는 씹어야 맞다 :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

17. 정답 ④

④번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일치하는 문장이다.

[오답]

① ‘~최근의 일로써’(X) → ‘~최근의 일로’(O)

② ‘~안 된다고 ~’(X) → ‘~안 된다고 ~’(O)

③ : ‘김 교수의 몽고에 대한 연구가’ 부분이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으로 어색하고, 문장 전체의 주술 관계가 부자연스럽다.

18. 정답 ④

괄호 뒤에 보면 “누구에게도 그렇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인 ‘보편성(普遍性)’이 적절하다.

참고로, 보편성의 반대는 ‘상대성, 고유성,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오답]

② 자의성(恣意性) :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사회적 약속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

③ 정체성(正體性) :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19. 정답 ②

수능형 쓰기 영역이 반영된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주제는 첫 문장에 나온 <주남 저수지의 백조들의 우아한 모습>이다. ②번은 백조가 아닌 다른 새들에 관한 내용이므로 단락 전체의 내용에서 어긋난다. 삭제해야 맞다.

[오답]

나머지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 굳이 추가하거나 빼야 할 내용이 없다.

20. 정답 ①

글의 중심 내용을 추론해야 하는 문제로, 다소 까다로웠을 수 있다. 글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잘 찾으면 된다. 진 나라 재상인 상앙은 나라의 기강(紀綱, 규율과 법도)이 서

지 않음을 걱정했다. 기강이 서지 않은 백성들이 나라의 법도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문(榜文)에 적힌 대로 상금을 하사하자 백성들이 나라의 정책을 잘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정책에 대해 백성들에게 신뢰(信賴)를 주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므로 ①번이 적절하다.

[오답]

④ ‘구실이나 이유’를 뜻하는 ‘명분(名分)’과는 관계가 없다.

<2012년 지방직 9급 국어 총평>
(天衣無縫 정원상 국어)

1. 출제 결과

	유형	문항수	비율
1	비문학	6	30%
2	어휘	4	20%
3	어문 규정	3	15%
4	어법	3	15%
5	속담	1	5%
6	문법	1	5%
7	한자 성어	1	5%
8	쓰기	1	5%

2. 2012년 지방직 국어의 합격선은 90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1년 지방직 국어에 비해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대체로 정답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평이한 문제들이었고 어문 규정은 단편적으로, 비문학 독해 지문은 다소 길게 출제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2011년 국어 과목의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았고 평균 합격선이 81.4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수험생들이 쉽게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한자의 독음과 표기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낮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치러진 2012년 국가직, 기상직, 법원직 문제들에서도 모두 한자의 독음과 표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서 문제 유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 작년엔 학생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문법 문제가 올해는 한 문제만 출제되었습니다. ‘용언의 활용’ 중에서 ‘ㄹ 탈락’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쉽게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비문학과 어휘 문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2008년 지방직 시험이 수탁으로 바뀐 이후 과거와 다른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도입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수능형 문제들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문학 독해와 쓰기 문제가 눈에 띕니다. 2011년도 비문학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6문항으로 두 배나 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또한, 지난 2012년 국가직, 기상직에 이어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4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전적,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것입니다. 단순한 어문 규정과 함께 어휘 영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 공무원 국어 과목을 준비할 때 한자 자체보다는 국어의 본질에 적합하게 어휘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라

는 의도로 보입니다.

4. 그래도 고난도 문제는 있습니다.

- 8번, 10번, 17번, 20번 문제 등 비문학 독해와 어법 문제에서 학생들이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선지들과 관계를 파악해 보면 답을 도출할 수 있었으므로 선택지에 대한 감(感)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올해 나오지 않은 영역이 있어서 내년에 출제될 유형이 있습니다.

- 2011년 지방직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로마자와 외래어 표기법이 출제되었고, 반면 2011년 시험에 출제되었던 띄어쓰기와 표준 발음은 올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2년 주기로 시험 문제가 반복된다.”는 공무원 시험의 경향과도 일치합니다.
- 따라서 내년 시험을 위해서는 올해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는 문학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지방직에서도 문학은 한 문제가 출제되어 비중이 낮았던 점과 일맥 상통합니다.
- 하지만 지난 2012년 국가직 시험에서는 문학 문제가 4문제 출제되었기에 문학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국어 시험은 문학의 비중이 5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현실도 고려해야 하고,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문학 문제가 다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2013년 내년도 예상 경향

내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늘어나면서 출제 경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 유형을 답습하기보다 수능 세대에 맞는 새로운 경향의 문제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어휘 문제, 비문학 독해 문제 등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문 규정에 제한하기보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고, 국어의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7. “노랑진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 시험 후 후회나 아쉬움보다는 부족함을 느끼고 냉정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지방직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허탈해 하고 리듬을 잃기보다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역설적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실패하고, 빨리 개선하고, 빨리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랑진의 시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합격을 기원합니다!

-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cafe. daum. net/jwskorean)**
“불가능한 꿈을 꾸었다면 불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